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4월 5일(주일) 제1043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소중한 날이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주(3월 30일~4월 3일) '고난주간 십아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주제로 구

원의 의미, 구원받은 성도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들의 주옥같은 설교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부활주일인 오늘은 각 캠퍼스별로 기념행사를

연다. 서빙고와 양재, 부천, 대전은 부활절 칸타타를 선보인다. 강동은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린다. 수원에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계란 나눔 행사를 하고, 수원 차세대는 나무심기 행사를 한다. 남양주와 양지는 부활주일 세례식

을 거행한다. 평택은 차세대(예꿈, 꿈땅)연합예배를 드린다.

차세대는 계란 나눔 행사를 하고, 대학청년부는 부활절 칸타타, 노방전도, 계란 나눔 행사 등을 한다.

4월 12일 승용차 안 가져 오는 날

대중교통 이용 ...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4월 12일은 교회에 승용차 안 가져 오는 날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와야 한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이다.

캠페인 당일 서빙고는 장애인 동반 차량만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양재를 비롯한 나머지 캠퍼스는 노약자와 장애인 동반 차량만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되던 셔틀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번 캠페인의 유익이 많

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열어 붙은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 인근 주민들이 주말마다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벗어날 수 있다. 또 5만여 명의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이번 캠페인은 온누리교회가 지역사회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CGNTV 개국 10주년 기념행사

'하모니' 앱 소개, 크로마 스튜디오, 다과 제공

오늘(5일) CGNTV 개국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를 주제로 진행된다.

CGNTV 개국 10주년 기념행사는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성원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10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GNTV 전 임직원들이 총출동해 선교교육방송으로서의 초심을 기억하고 재한신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꾸

며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성경 말씀과 중보기도문을 제공하는 'CGNTV 하모니 앱' 소개, 부활절을 기념하고, 선교지와 소통하는 사진촬영을 해주는 크로마 스튜디오 설치, 성도들과 나누는 다과, CGNTV 안 내테스크가 설치된다.

2000년 방송을 시작한 온누리TV가 2005년 8개 권역에 인공위성을 설치하면서 CGNTV로 거듭났다.



평소 주일 교회앞 도로.



차 없는 날 기대되는 교회 앞 도로.

온누리교회의 성숙함을 보여줍시다!

4월 12일은 대중교통 타고 교회 오는 날

온누리교회가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을 벌인다. 4월 12일은 교회에 승용차를 안 가져 오는 날이다. 이날은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이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한 실천 캠페인이다. 다만 서빙고는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 나머지 캠퍼스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동반한 차량은 예외다.

이번 캠페인은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일마다 반복되고 있는 교통 혼잡문제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소하려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하루 5만 명(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인원)의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보탬이 된다. 또 약 3천대 이상의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니 배기가스 배출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작지만 큰 영향력을 주는 캠페인이다.

/ 정지은 기자

중종로공동체 김희준 성도는 교회에서 4월 12일 실시하는 승용차 안 가져 오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그는 교회에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을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겼다. 교회가 먼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려는 노력이 흐뭇해서다. 마침 하루 1만보 걷기 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잘됐다 싶었다. 그는 4월 12일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 주일(3월 29일)부터 교회에 승용차 안 가져 오기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지난 주일(3월 29일) 오전 6시에 집을 나섰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부끄럽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꽃나무들과 인사하며 버스 정류장에 갔다. 그의 집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가는 버스 2016번이다.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 어색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다. 드디어 버스를 탔다. "이게 얼마만인가..." 오랜만에 탄 버스가 낯설고 설레기도 했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그는 1970년대부터 승용차를 끌고 다녔다. 오랜 시간 미국에서 생활하다보니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35년 만이었다.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시간 15분 동안은 긴장과 설렘의 연속이었다.

집을 나선지 30분 만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도착했다. 주차를 어디에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발걸음이 가벼웠다. 승용차를 가지고 교회

에 오는 시간과 비교해보니 시간이 상당히 절약됐다. 기름 한 방울 쓰지 않았고, 나쁜 배기가스도 배출하지 않은 것은 덤이었다.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한다면 교통 혼잡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주차사역팀 김일홍 성도도 4월 12일 실시되는 승용차 안 가져 오기 캠페인에 기대가 크다. 행복한 불편함을 통해 지역 주민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온누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캠페인에 동참한다면 교회 인근 주민들이 온누리교회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교회에 승용차 안 가져 오기 캠페인이 일회성이 아니라 교회 주변 주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주차사역팀원으로서 우려 되는 부분도 있다. 서빙고의 경우 장애인 동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나. 캠페인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보니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이 가장 염려된다. 대안이 무엇일까.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매주일 구슬땀 흘리는 주차 봉사자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기대한다.

사회선교 사역박람회 개최

4월 12일 서빙고 이천만광장과 양재 지상주차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회선교 사역박람회'가 열린다. 이날 20여 개의 사회선교사역팀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들을 소개하는 부스가 설치된다. 사회선교의 필요성과 유익,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다.

공동체와 다락방, 순별로 낮은 곳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이날 10개 부스를 방문해 도장을 받아온 성도에게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선물이 증정된다.

문의: 사회선교본부(3215-3434, 3436)

■ 대중교통 타고 교회 오는 법 ■

<서빙고>



버스 서빙고신동아아파트 하차

- 간선버스(파랑) 100 - 지선버스(초록) 2016, 3012, 6211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 중앙선 서빙고역 1번 출구

<부천> 문의: 목회지원실(032-322-9686)

<남양주> 문의: 목회지원실(031-565-9686)

<강릉> 문의: 목회지원실(02-475-9686)

<양재>



버스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일동제약사거리) 하차

- 간선버스(파랑) 400, 405, 407, 408, 421, 441, 471, 541, 542 - 지선버스(초록) 3412, 4432 등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수원> 문의: 목회지원실(031-895-6500~3)

<평택> 문의: 목회지원실(031-651-9680)

<양지> 문의: 목회지원실(031-331-8171)

<대전> 문의: 목회지원실(042-825-3642~4)

<인천> 문의: 목회지원실(032-437-9686~7)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출 23:1~9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함과 미움, 무관심과 냉대가 사라져야 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2010년 우리나라에 ‘정의열풍’이 불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년 만에 123만부 이상 팔리면서 일어난 열풍입니다. 읽기도 쉽지 않은 정치철학 도서가 그렇게 많이 팔리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작 미국에서는 10만부 정도밖에 팔리지 않은 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에 불과했습니다. 59%는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보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 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한 열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확산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정의는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와 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창 18:19).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란 단어가 성경에 수십 번 이상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게 하신 것도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압제하는 애굽인들을 향해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정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선언입니다. 증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정복은 가난한 족속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정의라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한 땅에서 악하게 행하면 그들도 정의의 대상이 됩니다. 가난한 족속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정의의 대상입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와 공의를 행하 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정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시 33:5).

히브리어로 의와 공의는 뜻이 다릅니다. 공의는 정의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는 올바른 관계,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를 설명합니다. 기초적인 정의입니다. 공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되었을 때, 심판을 하거나 올바르게 교정해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심판에 해당되는 정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공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존재했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고, 공의가 필요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저절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인자는 인애와 사랑을 합친 말입니다. 정의는 공의라고 번역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정의이지만 내면에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정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정의를 부르짖을 때 방향을 잘못 잡는 이유는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에서 비롯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정의를 주장하고, 누군가를 정의롭게 심판한다면 그만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인자한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처럼 보이지만 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거짓되고 왜곡된 사랑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음에 인자한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공평함입니다. 율법에서 행하라는 정의는 모두 사랑에서 나오는 공평함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모퉁이의 이삭은 내버려두고, 율기다 흘린 이삭은 줍지 말고, 가난한 이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구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일조를 제사를 집행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드렸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드리는 십일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의 십일조였습니다. 이 십일조를 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오고, 그 안식년이 일곱 번째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에는 빚만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원소유자들도 복귀됩니다. 가난한 정복 당시 각 족속, 각 가족들에게 할당되었던 토지가 완벽하게 정상화됩니다. 많은 빚을 진 사람도 있고,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을 텐데 50년째가 되면 모두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살면서 큰 실패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희년제도와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 제도,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두는 제도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공평한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심판하는 정의 이전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정의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정의로운 삶을 삽니다. 많은 행벌을 가해야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수록 덜 이기적이 되고, 더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는데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산다면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

하면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진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정의를 행합니다.

은혜가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정의의 차이입니다.

거짓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로운 삶에 대한 몇 가지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의를 굽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굽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거짓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1절).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7-8절).

여기에 보면 거짓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왜곡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정의를 굽게 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된 일에 휘말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뇌물은 뇌를 굴리면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선뜻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거짓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거짓된 입술, 거짓된 마음이 불순종을 만들어냄으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사탄은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된 일을 하는 사람만 통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이 얼마나 큰 위험을 만듭니까. 작은 거짓 하나가 얼마나 큰 공동체를 파괴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거짓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구속된 심령에도 거짓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차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아라

정의를 굽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편협함과 치우침입니다.

(13편에 계속)

CGNTV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 영혼을 위해

이재훈 목사, 손한기 장로, 유재건 장로에게
CGNTV를 묻다

CGNTV 선교헌신자와 운영위원회.

CGNTV의 시작은 단순했지만 비장했다. “5대양 6대주 어느 곳에서든지 안테나만 달면 24시간 예수님 소식을 듣고 꿈 얘기, 비전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해도...” 한인 선교사들과 750만 한인디아스포라, 선교지의 영적 충전을 위해 고(故) 하용조 목사에게 의해 시작된 CGNTV가 지난 3월 29일로 10주년을 맞이했다. CGNTV는 올해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글로벌 선교교육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다져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CGNTV 이사장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초대 대표이사 손한기 장로,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를 차례로 만나 CGNTV와 얽힌 이야기,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無에서 有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

■ CGNTV 이사장 이재훈 담임목사

—오늘 부활주일에 CGNTV 개국 10주년 행사를 갖는 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CGNTV가 걸어온 지난 10년은 ‘믿음 선교(Faith Mission)’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복음의 메시지를 상업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정공급원칙에 따라 순수 선교교육방송의 사명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10년을 내다보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한국교회에 연합의 씨앗을 심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결실을 맺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온누리교회 성도와 함께 CGNTV의 지나온 10년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10년 비전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GNTV 엠블럼에 ‘Glocal!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10주년이라는 의미와 함께 CGNTV의 존재 이유가 ‘한 영혼’의 소중함에 있음을 보여주는 콘셉트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맞춤방송, 곧 ‘현지화(Localization)’, 선교현장과 땅 끝까지 ‘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의 표현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CGNTV가 다가가는 ‘온 세상’에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하는 ‘글로벌(Globalization)’, CGNTV의 정체성이기도 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Glocal)’이라는 비전이 만들어졌고 실천 방안으로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이 설정된 거죠.”

—세계적인 선교기관인 해외사역연구센터(OMSC)가 오는 11월 초 한국에서 ‘초대형교

회의 선교 책무’라는 주제로 제3차 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KGMLF)을 갖는데요. 이때 CGNTV가 온누리교회의 선교 책무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KGMLF는 우리 교회의 선교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교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많은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타문화권 선교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왔는지를 평가받고 세계적인 선교전문가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하 목사님은 1985년 10월 교회를 창립하면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융합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꿨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창립 때부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다양한 선교기관을 만들어 역동적인 사역을 해왔던 거죠. 그중 온누리교회의 선교자원을 국내외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제공하는 데 CGNTV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방송에서 선교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맞춤 콘텐츠를 공급하는 ‘거룩한 파이프라인’이 됐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미주 등 4개 채널로 24시간 365일 방송을 하고 170여 개국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에 제작센터를 두었습니다. 2020년까지 이집트, 중남미, 인도 등지에 현지교회가 처음부터 함께하는 맞춤방송이 이뤄지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꿈도 꾸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일본 CGNTV 경우 오는 9월에 열리는 교토 러브소나타 등 일본에서 22차례나 러브소나타가 열리게 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지사 설립 8년 만에 일본의 47개 도현에 있는 일본교회 8,000여 개 가운데 2,200여 교회와 촘촘한 네트



워킹을 구축하고 있어요. 저희처럼 작은 방송국이 전 세계를 향한 방송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세계선교계에서 주목하는 일이지요. 이번 KGMLF에서 조심스럽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7일 CGNTV 10주년 감사 선교헌신예배에서 스가라 4장 1-14절 말씀을 들어 CGNTV를 하나님과 깊이 연결돼 있는 ‘등잔대’로 비유하셨는데요.

“CGNTV가 10년간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옛 등잔대를 위해 선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기름을 보충해야 하지만 스가라의 환상에 나오는 새 등잔대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로부터 직접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온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을 뜻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등잔대와 같은 CGNTV가 후원자들을 감동시킨 주님의 꿈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CGNTV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은 사라져 평지같이 순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누리교회 성도와 CGNTV 직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CGNTV의 등잔대가 계속 타오르도록 후원하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GNTV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은 가치 있는 헌신들이 모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교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듯, 온누리교회는 CGNTV를 통해 선교지 교회, 선교사들과 손잡고 더욱 현지에 필요한 방송을 만들고 그때 그때의 부르심에 순종해 열방의 빛이 돼주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신학교육이 열악한 곳에서는 신학교가 돼주기도 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앞으로도 이 땅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선교는 ‘하면 좋은’ 사역이 아닙니다. 미디어 선교는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 꿈을 함께 일궈 오신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CGNTV 형제자매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멀리 더 가까이

“되겠나 싶었는데 엄청난 방송이 됐어요!”



■ CGNTV 초대 대표이사 손한기 장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했는데요. 하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가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가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믿음대로 위성 입차 비용은 미디어 선교 비전에 순종하고 선뜻 위성 하나씩 맡아서 후원해주신 분들을 통해 채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국내에 위성방송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후원만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으로 전 세계에 방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요.

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후원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 필요 재정을 마련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CGNTV 사역을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사역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든든해지고 성장해간다는 걸 확신합니다. CGNTV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엄청난 방송이 됐어요. 저에게 CGNTV는 자식과도 같습니다. 수표 한 장을 놓고 하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냐고 말씀하실 때부터 함께 의논하고 방송국이 생겨나고 깊이 관여까지 했으니 남이 뭐라 해도 CGNTV는 제가 낳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CGNTV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2000년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회장실로 찾아가니 갑자기 제 앞에 수표 한 장을 꺼내놓으셨죠. 누군가 고액을 현금했는데, 너무 고액이라 당황스럽다면서. 현금을 낸 분이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목사님께서 당사자를 불러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물으셨는데, 그 분이 목사님 뜻대로 사용해주시라고 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IT로 돈을 버셨으니 IT 분야에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CGNTV 전신인 ‘온누리인터넷방송’이 탄생했습니다. 위성방송은 하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전쟁 종전 후 그 땅에 가서서 전황을 중계하는 CNN방송을 보신 게 계기가 됐어요. 하 목사님은 신기하게 여기면서 ‘아 저 접시 하나만 달면 전 세계 어디에나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방송이 잘 나오게 하려고 위성을 8개를 임차했죠. 위성 하나에 2억5000만원, 8억 원 정도라 실로 천문학적인 비용이었죠. 개교회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이 비용을

“방송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리랑TV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 목사님께 연간 예산을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금액을 말씀하니 그분은 ‘실례지만 위성방송이 된지는 아십니까?’라고 되물었죠. 저희 예산이 당시 아리랑TV 연 예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의 답변이 참 멋졌는데요. ‘제가 알았으면 시작했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맡기면서 시작한 사역이니까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



—과거에 비해 CGNTV 위상이 많이 달라진 거 같은데요.

“지난달 CGNTV 개국 10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독교 일간지, 주간지는 물론 모든 기독교 TV방송사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와는 사뭇 달라진 위상을 확인했어요. 제가 다른 기독교방송을 모니터링을 꽤 하는 편인데요. 보다보면 CGNTV 방송 포맷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걸 느낍니다.

설교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던 타 방송사들이 자체 제작물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울러 탁월

한 해외 허입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송 화질에서 저희가 월등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CGNTV가 기독교방송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CGNTV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CGNTV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은 바쁜 일정 중에도 CGNTV를 일일이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교회 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CGNTV를 가족이자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강동 온누리교회, 수원 온누리교회 등 각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CGNTV 홍보행사를 가질 예정인데요. 각 캠퍼스 담당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홍보시간을 할애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CGNTV 실행위원회는 매월 조찬 모임을 통해 CGNTV의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시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모임을 통해 저희의 비전을 공감하고 발전 방안을 찾아주십니다. 운영위 임원단은 매주 CGNTV 본사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운영위원 중 몇몇 집사님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스마트폰을 열자’는 콘셉트가 내재된 CGNTV 하모니 앱 출시를 위해 비용 후원 등을 주도하셨습니다. 이분들은 하모니 앱 출시 전부터 매주 한 차례 CGNTV 본사에서 기도회를 갖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 7시에 모여 기도로 하모니 앱 20 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CGNTV의 든든한 기도후원그룹이 있는데요. 월요일과 금요일 중보기도팀, 운영위 아웃리치 중보기도팀 등입니다. 이런 헌신이 모여 오늘의 CGNTV를 만들었습니다.”

—대표로 재직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없으셨는지요.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정들었던 직원들이 떠날 때죠. 떠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만 좀 더 대우가 좋았더라면 떠나지 않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늘 보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허전해기도 합니다. CGNTV를 온누리교회 방송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니 CGNTV를 도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죠.

프로그램도 온누리교회 것이 대부분 일 거라는 편견도 많아요.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CGNTV 중문채널(CGNTV 중문대), 일본채널(일본 CGNTV) 경우 ‘온누리 콘텐츠’ 편성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각각 174%, 180%에 불과합니다. 한국어채널과 미주채널의 경우도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죠. 예배, QT를 제외하면 전체 방송콘텐츠 가운데 온누리교회와 직접 관련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아요. CGNTV가 한국교회를 넘어 한국 크리스천 모두의 방송이라는 이미지와 신뢰를 심어주는 게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회복사역을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치유될 수 있다!

예배와 각종 프로그램 통해 치유한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적, 육체적, 영적 회복을 원하지만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있다. 바로 회복사역이다. 회복되기 원하거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면 온누리교회 회복사역팀의 문을 두드리자. 예배와 회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도와줄 것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다.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다. 회복사역 공동체는 다음과 같다.

금요회복예배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맞춤예배다. 고통 가운데 있거나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예배공동체다. 3주 동안 새가족반을 마치면 회복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19시20분, 서빙고본당)

회복소그룹은 5~10명 내외다. 참여자들의 비밀이 보장된다. 안전한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진술하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명하는 모임이다. 자아회복, 동반의존, 수치, 우울증 등을 주제로 모임을 갖는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돕는 모임이다.

한미음 정신회복예배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돕는 전문사역자와 봉사자들의 예배공동체다. 순모임, 정신의학강의, 수련회, 상담, 치유활동(등산, 영화,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웃음치료, 탁구교실, 요리교실, 성경일독, 자아회복그룹), 치유기도 모임이 있다. (서빙고 매주일 오전 11:30, 선교관 101호양재 매주일



사진은 지난해 프리덤스쿨 수료 모습. 정체성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오전 9시, 강의동 304호).

월요치유집회는 육신의 질병과 영적회복을 꾀하는 예배다. 치유와 기쁨 부으심, 간증이 넘치는 집회다. (매주 월요일 17시, 서빙고비전홀).

온누리 회복축제는 일 년에 한번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다. 회복축제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안을 찾는다.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참가할 수 있다. 올해 9월 열릴 예정이다.

회복사역학교는 회복사역에 관심 있고, 회복사역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스쿨이다. 회복사역에 대한 이론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 연 2회, 8주 동안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는 옛 자아를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스쿨이다. 내적치유와 상처, 학대와 수치심, 치유, 용서, 십자가 예식 등을 주제로 프로

그램이 2월3일 동안 진행된다.

프리덤스쿨(Freedom School)은 정체성 회복 프로그램이다. 각 사람들의 소명과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수치심, 분노, 거절감, 두려움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운다. 연 2회, 10주간 동안 진행된다.

메시지 테라피(Message Therapy)는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스쿨이다. 정신과 질병에 대한 전문의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 정신병리, 정신질환, 인격장애, 사회적 이슈에 따른 내면의 갈등문제 등을 다룬다. 정신건강 회복과 치유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가 대상이다.

하트스쿨은 어린이 회복프로그램이다. 어린이 하트스쿨, 부모하트스쿨, 하트사역자스쿨이 있다. 어린이하트스쿨은 어린이들이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미술, 음악, 놀이 등의 매체를 통해 회복을 꾀한다. 교육은 13주 동안

진행된다. 초등학교생이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부모하트스쿨에 참석해야 한다.

부모하트스쿨은 아이와 함께 떠나는 부모들의 회복여행이다. 전문 강의를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돕는다. 하트사역자스쿨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마음과 자화상을 갖도록 돕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스쿨이다. 이 스쿨을 수료하면 어린이하트스쿨과 부모하트스쿨에서 사역할 수 있다.

치유사역자스쿨은 치유사역자를 양성하는 스쿨이다. 치유와 기쁨 부으심에 대한 성경적 말씀을 배우고, 월요치유집회에서의 사역 실습을 병행한다. 연 2회, 7주 과정이다.

이 외에 **온누리상담센터**가 있다. MBTI, 에너지그림 등 각종 심리검사 및 법률상담과 같은 특수상담도 해준다.



칼럼 서성렬 장로

기쁨과 더불어 평강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백을 하는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주님을 모르던 청년시절 막연하게 위대한 신을 상상하던 것이 전부였다. 어머니가 소천하고 나서 삶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내 인생을 맡길 누군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렇게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성경필사도 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데도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2004년 9월 회복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회복사역은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었다. ‘지원그룹’에서의 경험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온 내 삶을 직면했다. 나의 허물과 죄, 연약함을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니 번번이 내 발목을 잡던 사단의 위력이 사라졌다.

회복사역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장이다. 두려움과 수치심 없이 말할 수 있는 곳이다. 어떤 말이라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고백의 능력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공동체

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자신의 능력과 힘(돈, 명예, 권력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부인하며 살고 있다. 나도 수많은 상처를 가진 나를 만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았다. 이런 거짓자아는 하나님께 향하는 길목을 가로막는 벽이다. 내 힘과 지식으로 그 벽을 넘어 서려고 했지만 육신만 깨지고, 찢어졌다. 결국 파투성이 되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 속에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새어 나왔다.

회복사역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회복예배 새가족반에서 만난 한 자매는 늘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후에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힘들다고 했었다. 회복사역에 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눌러쓰던 모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새가족반 이후 회복사역자학교, 내적치유학교, 지원그룹, 프리덤스쿨 등의 회복과정을 밟아나갔다. 그

녀의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었다. 회복사역은 교회의 낮은 곳, 더 낮은 곳이다. 한강으로 투신하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온누리교회 금요회복예배라고 말한 자매도 있었다.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음까지 생각하는 이들에게 회복사역은 한 줌의 빛이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매개체가 되어 주었다. 회복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에 남겨준 사역이다. 금요회복예배에 꾸준히 참석했던 40대 후반의 한 형제를 몇 년이 지난 후 모 대학총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장로였고 총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청년들을 위해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을 배우고자 왔었다고 했다.

올해부터 회복사역이 ‘Joy School(Joy Starts Here)’을 새롭게 시작했다. 회복의 과거 개념이 상처의 치유였다면, 이제는 상처치유를 넘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쁨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기쁨을 나누도록 돕는 보호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회복사역이 나아갈 방향이다.

청년들을 만나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바보들 ‘하늘공동체’

캠퍼스 복음화 위해 모임 18개 신설, 홀리스타 장소 이전



대학부 하늘공동체는 2005년 9월 태어났다. 디모데공동체가 하늘공동체로 이름을 변경했다. 하늘공동체는 이름 그대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바보들’이 슬로건이다.

하늘공동체는 수평적인 공동체다. 누가 와도 부담스럽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불평하는 마르다 보다 감사하는 마리아가 되기 위해 자발적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 기쁨을 강조한 공동체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순모임 참석률이다. 하늘공동체 순모임 참석률은 무려 90%를 넘는다.

하늘공동체 무대 배너에는 ‘Love God, Love Your neighbour’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적혀 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배우고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또한 매 예배와 순모임마다 직접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눈다. 그렇게 배운 사랑 실천 방법을 캠퍼스와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다.

대학생이 변하면 한국의 내일이 변한다

올해 대학부 하늘공동체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캠퍼스 복음화다. 하늘공동체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캠퍼스 모임 18개를 신설했다. 서울에서 캠퍼스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신촌 지역으로 홀리스타 장소도 옮겼다. 새벽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부르짖기 위해서다. 그 기도의 씨앗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캠퍼스가 밀집된 신촌에서 홀리스타를 진행하고 있는 하늘공동체.

것이라고 믿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신촌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한 드롭탑 커피숍에서 홀리스타를 하고 있다. 신촌 홀리스타는 신촌의 대학생들이 변하면, 한국의 내일이 변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월~금 6시50분, 신촌역 1번 출구 전방 50m 드롭탑 커피숍)

신촌 홀리스타 팀장으로 섬긴지 이제 한 달 되었다는 오세진 팀장은 대학부에서 6년 동안 섬겼는데 일주일 내내 새벽예배를 나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주일날 찬양팀과 순장으로 섬기면 됐지 새벽예배까지 나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달라졌다. 그것도 졸업논문, 취업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에 홀리스타 팀장을 맡았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때 오 팀장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다.

“너의 능력과 힘만 의지한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다들 게 무엇이냐”.

오 팀장은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경건해지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하늘 자매는 하늘공동체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홀리스타를 알게 되었다. 비슷한 또래 학생들이 스스로 새벽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홀리스타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MC에게 꼭 가겠다고 약속하고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할까

봐 밤을 샜어요. 그리고 홀리스타에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홀리스타 목요 스테프를 맡았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을 바꾸니 걱정이 기쁨으로 변했다.

하늘 자매는 이른 아침 뜨겁게 기도하는 하늘공동체 지체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여전히 잠이 많고, 반주하면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더 열심히 섬길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청년, 하나님을 만나다 이휘 형제(하늘 대학부)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난 모태신앙이다.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다. 어려서부터 성경암송을 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항상 교회와 가깝게 지냈다. 그런데 형식적인 믿음이었다. 남들이 가서,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교회에 다녔다. 그런 나의 모습이 싫어 교회를 한동안 떠나기도 했다.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았고, 주일예배 또한 드리지 않았다.

교회를 떠난 공허한 마음을 컴퓨터 게임으로 채웠다. 게임중독에 빠지기도 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공허한 마음이 사라질까 싶어 친구들과도 많이 어울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워지고 고독해졌다.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싶어도 행복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공허함만 커져갔다. 문득 내 인생은 실패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무기력해졌다. 나 말

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보였다. 나 혼자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인생의 목표를 잃고 방황했다.

우연히 대학부 하늘공동체를 알게 됐다. 호기심에 하늘공동체에 나가게 되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축복도 받았다. 신나는 찬송과 깊은 기도는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최성민 목사의 밝고 재밌는 설교도 좋았다. 그렇게 매주 하늘공동체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러던 찰나와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더 이상 하늘공동체에 오지 않게 되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혼자 교회에 가는 것을 고민했다. 생각해보니 나는 항상 타의로 교회를 다녔다.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았다. 그때부터 스스로 하늘공동체에 갔다. 친구들을 데리고 하늘공동체 수련회도 다녀왔다.

하늘공동체 조인공동체(신입생 공동체)도 있을 수 없다. 항상 교회에서 혼자인줄만 알았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다. 다양한 공인들이 있어 매 주일이 즐거웠다. 3개월간의 조인공동체 생활이 끝나게 되었다. 3개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하늘공동체와 조인공동체 덕분에 신앙과 무기력증을 회복할 수 있었다. 나는 3월 29일에 하늘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았다. 앞으로는 성경공부를 열심히 지식의 폭을 넓히고 싶다. 방황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돕고 싶기도 하다. 부모님이 곧 일본선교를 떠나신다. 함께 가서 도움이 되고, 일본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고 싶다. 내가 힘들고 방황할 때 곁에서 지켜주신 부모님이 계셔서 많은 힘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

신앙의 선배를 만나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유계준 장로

대(代)를 이어 받은 축복 ... 순교, 번성한 믿음의 가정

유계준 장로는 1879년 4월 3일 평안남도 안주군 청산면 오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였다. 그런데 유계준 장로가 13세 되던 해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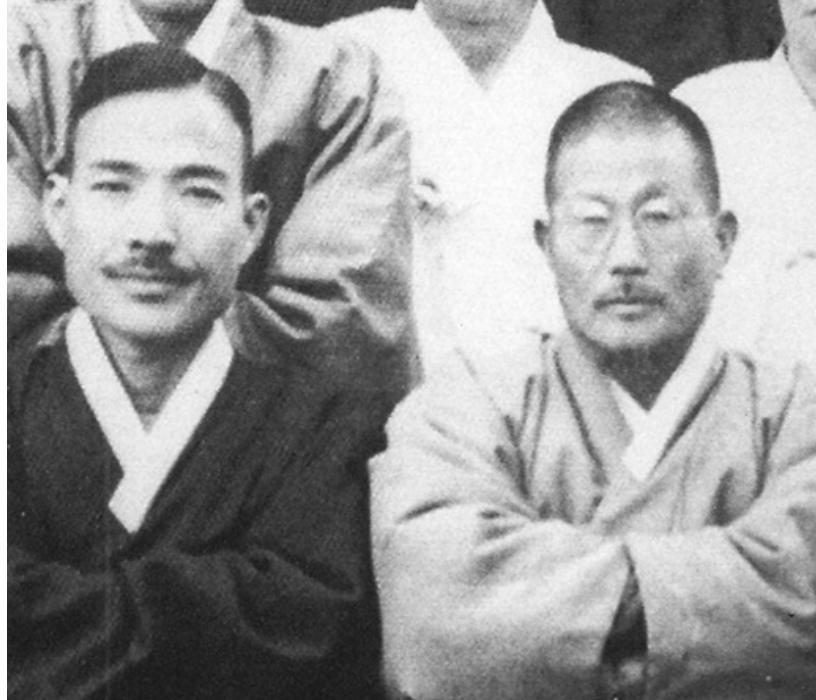
부친을 여읜 유계준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평양으로 갔다. 그곳에서 상점에 취직해 연명하던 중 1895년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평양은 전쟁터가 되었다. 누구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황폐해졌다. 유계준은 평양 교외 미림리로 피난을 갔다.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었다.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유계준은 동네 술꾼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매일 술로 보냈다. 그는 힘이 센 편이었다. 미림리 지역에서 주먹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 힘을 믿고 다시 평양 시내로 자리를 옮겼다.

술주정뱅이에서 장로로

평양에 온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유계준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며 돌아다니던 한석진과 김창식을 만났다. 한석진은 마포삼열 선교사의 조사였고, 김창식은 홀선교사의 조사였다. 그들이 전도하는 것을 본 유계준은 그들을 관가에 고발했다.

한석진과 김창식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포삼열 선교사가 고종을 급하게 알현했다. 평양에서 일어난 일을 들은 고종은



산정현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주기철 목사(좌)와 유계준 장로(우).

즉시 신하를 불러 어명을 쓰게 했고, 한석진과 김창식은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어느 날 유계준이 술에 취해 평양 서문통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인지 싶어 무리로 다가간 유계준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가 고발했던 한석진과 김창식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아서 연설하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유계준은 어느 새 무리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곳에서 전도지를 읽고 진리를 발견했다. 다음 날 유계준이 한석진이 머물고 있던 마포삼열 선교사사무실을 찾아가다.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평양 관가에 고발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유계준은 마포삼열 선교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는 독실하게 믿음생활을 하다가 45세에 장로로 장립 받았다. 유계

준은 장대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산정현교회가 설립되자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 섬겼다. 조만식, 오윤선과 함께 삼총사로 장로 장립을 받았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일제의 박해가 심할 때 뒤에서 순교자들의 가정을 도왔다. 그가 다니던 산정현교회의 주기철 목사 가정도 극진히 도왔다고 한다. 상해임시정부에 자금 지원도 했다.

후손들을 복 주시다

해방과 동시에 시작된 공산주의의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유계준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북쪽에 남고 가족들은 남쪽으로 보냈다. 그는 공산당 정권에 의해 수많은 탄압을 받다가 1950년 6월 24일 국가안전보위부에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그리고 그해 9월 28일 패주하는 공산군들에게 순교 당했다. 장로로 함께 장립된 오윤선, 조만식 등도 순교 당했다.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진가를 알아봤다. 유계준은 8남매를 두었는데 증손자까지 합치면 106명이다. 그 대부분이 박사다. 사람들은 “그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부어 번성했다”면서 지금도 그의 믿음을 높이 사고 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목회칼럼 정장철 목사(관악금천공동체)

나의 삶으로 부르는 부활의 노래

노래는 사람의 목소리에 가사와 곡조를 담아 부르는 것을 말한다. 노래는 시대와 민족과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소유하거나 혹은 나누는 아름다운 그 무엇이다. 성경에 가인의 후손 유발이 수금과 통소를 잡은 조상이 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 시기는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일 것이다.

목소리에는 음의 높고 낮음, 길고 짧음, 강함과 약함, 그리고 숨소리까지 다양한 것들이 담겨있다.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생을 보아도 때로는 높은 곳에 처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낮은 곳에 처할 때도 있다. 어떤 고통의 경험은 너무 길어 견디기 힘들 때가 있고, 어떤 행복의 경험은 너무 짧아 아쉬울 때도 있다.

어떤 경우는 커다란 장벽에 담대하게 맞설 때가 있지만 다른 경우는 별것 아닌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때도 있다. 삶의 어느 순간 달릴 때가 있지만 가끔은 숨을 고르며 멈춰야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경험들과 많이 닮아있다.

목소리가 노래의 중요한 일부라고 본다면 삶의 경험 또한 삶의 노래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들과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노래를 들을 때에 기쁨이나 슬픔, 밝음이나 어두움 등 다양한 감정을 노래 속에서 느낀다. 그런데 목소리가 높은 음이라서 기쁜 느낌이 들고 낮은 음이라서 슬픈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니다. 기쁨의 웃음소리도 높은 음이지만 슬픔에 외치는 소리도 높은 음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강한 소리라도 아득게 느껴질 수 있고 약한 소리라도 밝게 느껴질 수가 있다.

하지만 노래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목소리를 제외한 가사와 곡조를 살펴보면 그것들은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두움, 나아가 긍정과 부정까지도 분명하게 구분된다. 기쁨의 내용을 담은 가사는 기쁜 노래가 되고 밝은 느낌의 곡조는 밝은 노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결국 노래가 기쁜 노래인지 슬픈 노래인지, 밝은 노래인지 어두운 노래인지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가사와 곡조에서 결정이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소리와 같은 다양한 일상의 경험들을 우리가 어떤 가사와 어떤 곡조로 담아내느냐

에 따라 우리의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가 된다.

애통과 절망의 낮은 곳에서도 주님 주시는 위로의 가사와 흥겨운 곡조를 붙일 수 있다면, 희생과 섬김의 낮은 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노랫말과 경쾌한 멜로디를 어우를 수 있다면, 그 노래는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부르던 위대한 노래가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죽음과 같은 고난’이라는 목소리일지라도 ‘예수님만을 꼭 붙잡는 굳센 믿음’이라는 가사와 ‘승리를 주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힘찬 곡조를 붙일 수 있다면 이 부활절의 아침, 나의 삶으로 부르는 부활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기독교, 그 찬란한 역사를 만나다

의료선교 위해 세워진 ‘전주 예수병원’

우리나라 최초 ... 잉골드 선교사의 숭고한 희생

그녀가 전주에 왔다. 당시 전주는 험벗고, 배고고, 아프고, 신음하는 사람들 천지였다. 그녀는 그들을 살리고 싶었다. 아니 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자나 깨나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을 토해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숭고한 정신이 전주 예수병원을 세웠다. 그녀는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 정신만은 뚜렷하게 남았다. 오늘은 그녀를 만나야겠다.



잉골드 선교사(왼쪽)와 테이트 목사 부부.

마티 잉골드(Mattie Ingold)는 어려서부터 선교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복장로교 해외선교부에 가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1883년에는 의료선교사가 되기 위해 볼티모어에 있는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뛰어난 인재였다. 졸업식에서 의학이론과 실기상을 모두 받았다. 이 상은 학업성적이 93점 이상 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 졸업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학생이 받는 상이다. 한 사람이 두개의 상을 모두 받는 일은 드물었다.

1897년 7월 18일 그토록 바라던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파송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 작별은 달콤한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수년 동안 소망하고 노력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온 바가 이 작별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외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제게 성경을 주십시오. 성경의 명령과 약속은 저의 임무를 너무나 명백히 보여주므로 제가 가는 것을 제지시킬 수 있는 이보다 더 힘 있는 어떤 권유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잉골드 선교사와 테이트 목사

그녀는 한국에 오기 위해 먼 여정을 시작했다. 동쪽 북캐롤라이나 학거리에서 서쪽 샌프란시스코까지 2주 동안 이동했다. 그곳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선교사들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호놀룰루를 거쳐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일본 고베에서 2주 동안 머물며 선교사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9월 10일 한국행 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처음 발을 내딛은 한국 땅은 부산이었다. 부두에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만났다. 9월 15일 제물포(현 인천)에 도착했다. 당시 잉골드 선교사를 마중 나온 사람이 바로 테이트 목사다. 이 두 사람은 후에 부부가 됐다.

전주지역 선교역사에서 테이트 목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전주의 사도 바울로 불렸다. 테이트는 전진 목사와 함께 1892년 11월 3일 처음 전주에 왔다. 2주 동안 머물면서 전주지역 선교를 위한 그림을 그렸다. 이듬해인 1894년 2월 여동생과 함께 전주에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 남장로 선교부에서 실시한 전라북도 선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테이트는 당시 전주 외곽 완산자락 은송리(현 완산동) 초가 1동에 전주교회(현 서문교회)를 세웠다. 전주교회는 호남지방 최초의 교회다.

잉골드는 1897년 10월 18일 테이트 목사의 동생인 매티 테이트, 드류 박사의 부인, 아이들과 함께 군산에 도착했다. 드류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1897년 11월 3일 전주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녀가 전주에서 본격적으로 의료선교를 시작했다.

호남지역 최초 근대식 병원 '예수병원'

예수병원은 18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한국근대와 초기에 설립된 왕립병원이다. 일제에 의해 세워진 병원들과 달리 처음부터 의료와 선교를 위해 설립되었다. 마티 잉골드는 1898년 11월 3일 초가 진료소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 잉골드는 그녀를 도와주는 예씨 부인과 함께 진료첫날 여섯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첫 달에만 1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당시 환자들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기초적인 위생과 청결문제만 신경 쓰면 낫는 병이 많았다. 잉골드는 감염으로 죽어가는 한 여인을 구하는 등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종종 수술도 했다. 절개, 결핵성 농양 치료, 설사와 이질치료, 백내장 제거, 화상치료, 분만, 잔류태반 제거 등 다양한 치료를 했다.

1899년 잉골드의 진료소는 마침내 병원으로 세워지게 됐다. 이 병원이 바로 예수병원이다.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혜원(1884)에 이어 국내



전주 예수병원.



잉골드 선교사 일행이 왕진가는 모습.

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근대식 병원이다. 호남지역 최초 근대식 병원이다. 예수병원 설립비용은 미국 남장로교 여전도회원들이 생일을 맞아 봉헌한 감사헌금으로 충당했다. 소중한 헌금이 가난하고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한국에 보내졌다.

1899년 4월과 6월 사이 진료소가 문을 닫았다. 마티 잉골드의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건강을 회복한 잉골드는 1902년 10월과 11월에 새 진료소 문을 열고 의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잉골드는 1905년 9월 한국에 왔을 때 그녀를 마중했던 테이트 목사와 결혼했다. 결혼 후 잉골드는 진료소를 사임하고 남편을 도와 사역했다. 1910년에는 어렵게 임신했지만 사산하고 만다.

1925년 잉골드와 테이트 부부는 28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잉골드는 스프루우(Sprue)라는 병에 걸렸고 남편 테이트는 만성 심장병이었다. 1922년 2월 9일 테이트 목사가 심장마비로 별세한다. 잉골드는 1932년 10월 26일 생을 마감하고 남편의 묘 옆에 묻혔다.

예수병원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신사 설치 거부로 폐원 당하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문을 닫는 불운을 겪었다. 예수병원은 구한말인 190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센환자를 치료했다.

1930년 X-ray 장치 설치, 1963년 암 등록제도 도입, 1964년 기생충 박멸운동 전개, 1965년 민간보험 도입, 1967년 암 치료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발트 60·이리듐 192사용, 1972년 서요한 선교사가 외과 고정술·할로형 보조기사용, 2003년 종합병원내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센터 개설, 2005년 국제 NGO 국제의료재단 설립 등 대한민국의 의학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예수병원 설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998년에 설립된 예수병원 의학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 의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예수병원 설립자인 마티 잉골드 의사의 유품과 사진을 비롯해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 모습, 옛 전주 전경, 현미경과 청진기 등 각종 의료장비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지난 2007년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의료분야 목록에 포함된 병원 설립자인 마티 잉골드 원장이 말을 타고 왕진 가는 사진(1898년)과 진료 사진, 방광내시경 및 요도 확장기(1930년), 안과 수술기구(1948년), 중앙삼부치료 기록지(1955년) 등 다섯 점의 전시물은 꼭 보기를 바란다. 초대 병원장인 마티 잉골드 원장의 블라우스와 구두, 역대 병원장들이 사용했던 청진기도 놓치면 안 된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5 고난주간 심야예배.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고난주간 심야예배 종료, 매일 4천5백여 명 참석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잘못된 신앙의 견고한 진을 이번 고난주간 심야예배 말씀을 통해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제게 큰 반성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J4U 공동체 최영숙 자매와 허세현 자

매가 이번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관이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목사들의 설교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성도들에게 도전과 감동,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예배현장에서 만난 성도들은 손에 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반성하고 서있는 자리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고백

을 쏟아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주제로 진행된 고난주간 심야예배에는 일일 평균 4천 5백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김형준 목사(동안교회)와 유해근 목사(나섬교회), 김성근 목사(열방빛교회), 명성진 목사(예수마을교회)가 순차적으로 설교했고, 성금요일(3일)에는 이재훈 목사가 설교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한국기독교사를 배운다

5월 7일부터 8주 동안 목요일 19시

한국기독교사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강의가 시작된다.

‘한국교회 처음사람들’을 주제로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5층 경천홀에서 강의가 이어진다. 강의는 이덕주 소장(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이 한다.

일반인, 학생, 목회자 등 한국기독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선착순 100명). 회비는 없다.

8주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준다. 4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강의주제는 ▷홍삼 팔러 갔다가 성경 팔러 돌아온 매서인 서상훈, ▷이름과 함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여전도사 김세지, ▷점쟁이 출신 맹인 전도사 백사검, ▷백정 해방 운동의 선구자 박성춘, ▷성을 두 번 간 여인 여메데, ▷의병장 출신 최초 순국 목회자, 구영연, ▷동학 접주 출신 장로교 최초 목사방가창, ▷이름 바꾸고 1백 데나리온 빚진자를 탕감해 준 종순일 등이다.

문의: 02-2226-0850

안산M센터

공사현장 감독관 모집

관련 경력자 우대

선교재단에서 안산M센터 신축 공사 현장 감독관을 모집한다. 근무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0-2번지다. 모집인원은 1명이다. 성별은 무관하다. 온누리교회 성도여야 한다.

채용되면 온누리교회 선교재단에 소속된다. 공사현장 감독관리(4대보험, 소정의 사례비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축 관련 유자격 및 현장관리 유효합자를 우대한다.

근무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다. 서류는 이메일(jasan119@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143

온누리교회와 함께 하는 ‘굿월스토어’

4월 19일과 26일 기증 행사

장애인의 달을 맞아 온누리교회와 굿월스토어가 함께 나눔을 실천한다.

4월 19일과 26일 쓰지 않는 의류, 잡화, 문화용품, 건강, 미용, 생활용품, 가전 등을 기증하면 된다. 손상되거나 오래된 것, 고장 난 가전은 받지 않는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는 기증함이 설치되고, 양재는 두란노 서점 앞에서 기

증을 받는다. 기증품을 가져오면 굿월스토어 리플렛, 자석, 기증봉투, 기증품 인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굿월스토어는 기증품을 판매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증품판매소다.

문의: 02-6910-9191



13년된 용산복지관은 매일 1천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3주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이하 용산복지관이 개관 13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복지관 어르신, 지역주민, 온누리교회, 용산구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 13주년 감사예배는 용산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조 장로는 “용산복지관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친가족처럼 여기는 복된 복지관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설교는 박종길 목사가 했다. 마태복음 9장 20-22절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선포한 박 목사는 “용산복지관 모든 어르신들이 좋은 믿음을 통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축복

했다. 용산복지관 박준기 관장은 “복지관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20주년, 30주년이 될 때까지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수 용산구 부구청장이 모범어르신, 우수단체, 우수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모범어르신상을 수여 받은 안옥희 어르신은 “용산복지관에서의 삶이 정말 즐겁고 감사하다”면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복지관과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산복지관은 등록된 회원만 14500이다. 하루 평균 1400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 김현준 기자

NGO 더멋진세상, 의료진 초청 연수사업 시작

르완다와 이집트서 의사 2명, 간호사 3명 초청

NGO 더멋진세상이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했다. 개도국 의료진 초청 연수교육을 통해 해당국의 의료기술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사업은 NGO 더멋진세상과 제11차 서울 세계 간·담도·췌장외과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지난 3일 이집트에서 의사 한명이

입국했다. 향후 르완다에서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아산병원 및 관련병원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오는 26일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연다.

/ 김현준 기자



- 4월 6일(월) 교토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 4월 7일(화) 모든 출연진, 프로그램, 장소와 장비들을 기록하게 하소서
- 4월 8일(수) 교회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집회를 축복해 주시길
- 4월 9일(목)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초대된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 4월 10일(금) 모든 참가자, 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제1043호 | 2015년 4월 5일(주일)

■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에서 보낸 1년



/ 김민선 자매

“나에게 세네갈은 선물입니다”

나는 세네갈 본나비마을에서 일 년을 지냈다. 돌아와서 보면 기다림이 참 많은 시간이었다.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세프플러스’가 언제 오는지, 지나쳐 가지는 않는지 기다렸다. 이른 저녁 어스름할 즈음 전기가 나가면 밝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우물이 마르면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 ‘케르발라 초등학교’가 하루 속히 완공되기를 기다렸다. 공사가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가다림의 훈련 속에서 케르발라 초등학교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사막의 오아시스였다. 그만큼 시원했다. 이렇게 아리고 작은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놀라웠다.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킁킁 웃으며 ‘저 외국인인 누구지?’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서로의 언어를 몰라 얼굴만 쳐다보고 웃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 아이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언니 오빠와 함께 학교에 다니는지 등을 알고 싶었다.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었다.

“What’s your name?”

언제부터가 아이들이 나와 마주칠 때마다 내 이름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알려줬는데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왜 그러는지의 문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도 나와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런데 아는 말 이 이름 물어보는 말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

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다.

케르발라 초등학교의 씨스 교장선생님이 한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본나비란 마을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이 사막 한 가운데 학교가 세워져 오게 되었다. 신이 나를 보낸 것 같다. 세네갈의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떠나는 꿈을 꾸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땅, 물, 자원이 있고 사람들도 있으니 이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이다. 다음 세대가 이 노력을 이어나가기를 꿈꾼다.”

그 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어렵듯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이 꿈꾸는 본나비의 미래가 이곳 사람들과 함께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내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세네갈 사람들을 품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들과 조금 더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 언제나 날 반겨준 고마운 케르발라 초등학교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세네갈을 떠나면서 가장 아쉽다. 내 마음 속에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말을 세네갈에서 일 년을 보내면서 각별하게 느꼈다. 그 말 속에 있는 아주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실로 나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세네갈 본나비마을을 사랑하심을 알기에 그곳의 변화가 기대된다.

■ 대학청년부 프렙(거지전도) 간증



/ 노현승 형제(허브공동체)

귀한 만남과 인도하심

팀장으로 프렙을 섬기게 되었다. 많은 생각과 부담이 있었다. 밤늦게까지 고민해 봤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프렙을 가는 지체들이 교회에 모일 때까지도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나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뽑은 말씀이라며 말씀카드를 건네주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마 8:26).

말씀을 읽는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 힘으로 모든 일정을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고만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수원으로 가게 되었다. 수원 호매실동에 있는 금호영락교회를 방문했다. 그곳 목사님께서도 젊었을 때 몇 달 동안 서울에서부터 강원도 양구까지 거지전도여행을 다녀셨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를 호탕한 눈길로 바라보셨다. 목사님의 신앙에 대한 말씀도 들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개척한지 얼마 되지 않은 수성비전교회를 가게 되었다.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다. 목사님께서 전도지를 나눠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선포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중에 언덕길을 목발을 짚은 채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도와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 곧바로 할머니께 다가가 잡까지 짐을 들어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의 잡까지 가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께서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셨다. 3년 뒤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다고 하셨다. 어르신들과 함께 가정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했다. 팀끼리 나눔을 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해 감사드렸다. 이번 프렙은 다른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강하게 느낀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12년 전 고백을 다시 붙잡고

/ CGNTV 제작기획팀 민정환 팀장

2003년 12월, 1년간 일본 자비량 선교가 끝나갈 즈음 오사카 지역 담당 선교사님과 자리를 마주했다. “정환 순장, 장기 선교사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자신 있게 떠난 자비량 선교였지만 언어의 장벽 앞에서, 나의 인격 앞에서, 나의 부족한 믿음 앞에서 그 기간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전공을 살려 어떻게든 선교의 끈을 이어가고 싶었다. 졸업을 앞 둔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CGNTV에 입사하게 되었다.

CGNTV에서의 시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즈음 일본 CGNTV 개국 소식을 들었다.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일본제작팀에 소속되었다. 러브소나타 스태프로 다시 간 일본에서 자비량 선교를 할 때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을 다시 만났다.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CGNTV 안테나를 달아드렸다.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CGNTV에서 나오는 새벽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참으로 귀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앞으로 더 큰 열방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 순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굳이 선교지에

있지 않더라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주님, 비록 힘들지만 제 인생에서 100%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생의 십일조, 10년을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10년을 보냈다. 막상 10년이 지나니 또 고민이 됐다.

“이제 10년 채웠으니 그만할까?”, “주님,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이후 인생의 발걸음을 두고 기도하던 중 소망이 생겼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하나님은 10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 혼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선교자적 삶을 시작해야 한다. 분명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방해도 있겠지만 12년 전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말씀을 다시 붙잡고 선교지로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이하경 부: 이현재 모: 민가영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다

이 간증을 작성하기 직전까지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쓰라고 미뤘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임을 머리로는 이해했지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하경이를 위해 유아세례를 받도록 하겠다는 부모가 간증 쓰는 것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무슨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떤 간증을 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하경이를 보내주시고 그동안 키워 주신 이야기를 하며 감사를 드리기로 했다.

아내는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지만 아이를 낳을 거면 결혼도 안하겠던 사람이었다. 아이 갖는 것을 주저했다. 그런데 갑작스런 임신소식에 적잖이 당황했다. 남들보다 늦은 임신으로 건강한 아기를 낳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임신 8개월째에는 역아임을 알고 제왕절개를 고민했다. 하나님은 임신 9개월째에 하경이를 바로 잡아주셨다. 출산할 때에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간호사의 응급처치로 자연분만

에 성공했다. 그렇게 하경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돌아켜 생각해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순간들이 많았다. 지금은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하경이를 통해 우리 부부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셨다. 또 부모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셨다.

지난 2년여의 시간동안 큰 탈 없이 하경이를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손녀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장모님께도 감사드리다. 그리고 오늘도 9남매, 30여 명의 손자손녀들과 증손자들을 위해 매일 두 시간씩 기도하시는 아흔의 외할머니께도 감사드리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 대신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기도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외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이어진 믿음의 유산을 이제 하경이에게 물려주고 싶다.



신앙에세이 안광국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사랑의 능력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 나의 둘째 딸은 뱀이 허물을 벗듯 옷을 늘 바닥에 벗어 놓는다. 아내가 혼을 내고 내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습관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나는 1996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20년 이란 시간 동안 꽤 많은 설교를 했지만 주일 설교를 토요일 이전에 완성해 본 기억이 없다. 설사 월요일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내도 주중에 꼭 수정해야 할 일이 생겨서 토요일에 여전히 설교 원고를 붙잡고 있게 된다. 왜 중요한 계시는 꼭 토요일 저녁에 임하는지... 내성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파나는 노력을 해도 물과 기름처럼 가깝지기가 어려운 성격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일까?

자기 정원의 잔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자꾸만 피어나는 커다란 민들레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는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자꾸만 피어나는 민들레를 없애려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다. 결국 근처 주립대학의 농업학과에 편지를 써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시도한 방법을 모두 나열하고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답신이 왔다. “저희는 귀하가 민들레를 사랑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는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

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들은 문화유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간식과 서로의 옷을 보면서 쉬새 없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니 이렇다면 왜 먼 길을 떠나 여기까지 왔냐고, 문화유산을 보러온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 오히려 그들은 “교수님은 똑똑하고 많이 아시니까 감동이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고도 뭐가 좋은지, 뭐가 아름다운건지 몰라요...”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유홍준 교수는 조선 정조 때의 문인 유한준의 말을 인용하며 “사랑하면 보이고 보이면 알게 되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을 남긴다. 곧 사랑하는 만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꾸 눈에 보이게 되고 보이는 것은 알게 된다는 말이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랑의 힘이 제일 능력이 있다. 늘 실수하는 둘째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여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사랑하면 설교의 준비는 늘 축제가 된다. 나와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들의 다름은 틀림이 되지 않는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해 본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이 노력하는 삶이 아닌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장로칼럼 김성묵 장로(아버지학교 상임이사)

황혼이혼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황혼이혼은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2012년 서울에서는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섰다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 가장 풍요로워야 할 시기, 인생을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후손들과 사회에 남겨주고 떠나야 할 시기에 한평생 살아왔던 노부부가 갈등으로 헤어진다는 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가문, 그리고 사회의 문제다.

몇 년 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머가 있다. 60대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다섯 가지가 있다. 여자는 1위부터 돈, 건강, 딸, 친구, 심지어 순인데 반해, 남자는 1위부터 애, 아내, 부인, 집사람, 마누라라는 것이다. 60대 이후 여자들은 남편 없이도 살아가지만 남자는 아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증명이라고 하듯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아내가 훨씬 많다.

황혼이혼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부부가 부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가족사회였던 예전에는 부모중심으로 살았다면 최근에는 자녀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부부생활은 뒷전이고 자녀중심으로 살다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져 못 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려기 가정이다. 성경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부부 일심동체 즉, 부부가 하나 되어야만 자녀양육이 잘 되고 자녀들

을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고 자녀들이 떠난 후에도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둘째로는 친밀감의 결여다. 성경은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친밀감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의 종류에는 열정적인 사랑, 친밀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적인 사랑이 주를 이룬다. 많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이 있어도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친밀한 사랑이다. 정서적인 친밀감이 무너지면 육체적인 연합과 영적인 연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셋째는 소통의 부재다. 즉 불통이다. 진정한 소통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해하고 이해받고 사는 것이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어느 가정이라도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소통하는 것이다. 소통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소통은 커녕 불통 아니 꼰통이 되어 간다는 데 있다. 나이 들면 아름다움은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에 있다.

노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재정, 취미활동보다 부부관계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건강, 재정 관리도 잘 되고 취미활동도 의미가 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공존과 갈등관리가 중요하다.

*이 글은 월간《아버지》에 실린 글을 전제했습니다.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3 : 솔로몬의 지혜 ‘듣는 마음’

열왕기상(개역개정)에 ‘지혜’라는 단어가 19번 나온다. 뜻을 만드는 히람의 지혜(7:14)에 대해서 한 번, 나머지 18번은 모두 솔로몬에게 적용되고 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 1,006편을 짓는 등 문학적 능력도 뛰어났고, 동식물에 관한 백과사전적 지식도 있었다.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역시 ‘솔로몬의 재판’(3:16-28)이다. 어느날 창기 두 명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창기처럼 비천한 여인들이 왕을 찾아와 판결을 요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비천한 자들까지도 돌보는 왕이었음을 암시한다. 아마도 창녀 두 사람은 솔로몬을 찾아오기 전에 일종의 하급심 재판을 받았을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솔로몬에게 온 것으로 보인다. 창녀 두 사람 외엔 현장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터라 양측 주장만으로 진실을 가려야 했다. 솔로몬도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진위를 가릴 수 없었던 것 같다. 논리와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솔로몬은 뜻밖의 판결을 내린다. 칼을 가져오게 하더니 아이를 둘로 잘라 나눠 주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예기치 않은 왕의 판결 앞에 두 여자는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이제 곧 저 아이는 칼에 죽는다. 일촉즉발 위기 앞에서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3:28). 여인은 왕에게 간

청한다.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시라고.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준다. 이 판결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봤다(3:28). 솔로몬의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보여준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것인가? 솔로몬이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그가 동원한 방법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솔로몬은 극단적 상황을 연출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머니의 심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의 본질이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바로 앞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들려준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 여호와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

별하게 하옵소서”(3:9).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지혜’(히브리어로 ‘호크마’)가 아니라 ‘듣는 마음’(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이었다. 우리말성경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으로, 개역한글성경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다. 솔로몬이 박학다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똑똑함)를 구했다고 알고 있으나 아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다. 논리적 사고도 있어야 한다. 성경은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한다.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솔로몬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3:12)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듣는 마음’이 곧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 총명을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선 ‘듣는 마음’이다. 열왕기상 4:2에서 그 마음은 ‘넓은 마음’으로 나타나고, 10:24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말한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지혜는 마음에 자리잡아야 한다!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이 없는 ‘똑똑함’ ‘헛똑똑이’를 키울 뿐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내 자녀에게 있기를 기도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네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2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주의 최고의 위험은 포퓰리즘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수가 정의를 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3절).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6절).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라는 명령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편협한 치우침이 정의를 굽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약자도 거짓되면 심판하십니다. 약자라고 해서 그것이 무기가 되어 공평을 무너뜨리면 정의를 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균형을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치우치지 않은 균형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정의를 굽게 하는 세 번째 요소는 미움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된 공평함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순간 정의를 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야. 네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잡히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야”(4-5절).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습니다. 원수의 소와 나귀입니다. 원수가 소와 나귀를 찾고 다니는데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원수지만 찾아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잡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정의를 굽게 합니다. 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정의입니까. 세상의 정의는 원수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면 같이 증오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피 흘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의 소와 나귀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길을 잃고 있으면 찾아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폐지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강조했던 것은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정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대부분은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백인을 미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백인에 대한 분노로 인종차별 폐지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학대하고, 미워한 백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흑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정의를 부르짖었기에 사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백인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해 인종차별운동을 했더라면 미국은 변화되지 못하고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의로운 외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서 비롯된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억압하지 말라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9절).

원수에 대한 미움이 정의를 굽게 하고, 이방사람에 대한 무관

심이 정의를 굽게 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직접적인 가혹행위는 억압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관심과 냉대도 억압입니다. 우리가 낯선 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학대한 것 같은 현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무관심과 냉대와 배척이 심합니다. 우리는 이방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많은 이방인들은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방사람들은 꼭 외국인 노동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도 이방인입니다. 주변에 무관심과 냉대로 소외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도 정의를 굽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이비어교회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면서 사회선교로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고든 코스비 목사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제자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는 가난하고 무력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쓰레기처리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켜줄 사람, 그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단 한 사람도 없어 속으로 한을 삭이며 삽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옥이나 병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복지기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의 귀찮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눈을 내리깔고 한숨하다는 듯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만일 버림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당신은 순식간에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이며 당신이 그동안 만났었던 모든 특권과 지위와 기회를 내려놓고 그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위를 향한 운동이 아닌 아래를 향한 운동 낮아질 대로 낮아져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께 기대게 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에야 그동안 외면했던 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 그동안 외면했던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낮은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갈 때 비로소 이방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는 편협함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의를 굽게 하는 미움과 무관심과 냉대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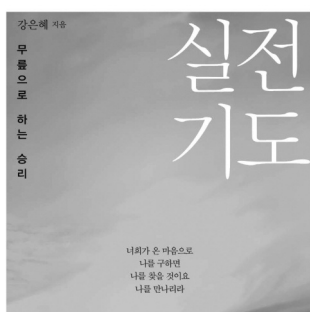
두란노 신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실전기도〉

강은혜 저 | 두란노 | 13,000원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잘하기는 어렵다. 기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 낙담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쓰여 있다. 저자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진단만 하지 않는다.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도 친절하게 소개한다. 저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제목과 기도 방식까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했거나 아직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실전기도〉를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기도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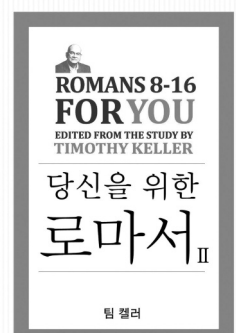


〈당신을 위한 로마서II〉

팀 켈러 저, 옮긴이 김건우 | 토기장이 | 14,000원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에 관한 가장 일관된 설명이면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감동의 탐구이다. 팀 켈러는 〈당신을 위한 로마서 I〉를 통해 한국 독자와 만났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팀 켈러가 로마서에 관한 두 번째 책을 펴냈다. 한번 들어온 복음은 삶으로 확증되기 마련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팀 켈러는 로마서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려고 하거나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 책은 로마서에 관한 주석이 아니다. 학문적 성과를 상세히 반영하지도 않았다. 이 책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어떻게 일상 속에서 말씀을 적용할지 제안하는 해설이자 안내서다. 이 책은 우리에게 바울이 품었던 위대한 열정을 선물하고 있다.



32쪽